

'국민 육아 멘토' 오은영 원장, 어른마음까지 보듬는 따뜻함 전해

'육아 대통령'으로 불리는 오은영 원장은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그는 오은영의원 소아청소년클리닉 원장, 오은영 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다.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EBS '60분 부모', JTBC '가장 보통의 가족'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오은영 원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신촌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서울삼성병원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임의 및 임상 교수를 거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을 지냈다.



브라운스톤레전드 서울 강남구 삼성동 8-2

오은영 원장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데에는 아버지의 건강문제가 컸다. 그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수술을 받기 전 적금 통장

들을 내밀며 유언 같은 말씀을 전했다. 이런 일을 겪어온 오은영 원장은 이후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의대에 합격해 정신의학 분야에서 청소년 정신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다행히 아버지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현재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오은영 원장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방영한 SBS 교양 프로그램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출연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이 방송에서 그는 '아이에게 무언가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변화를 아이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약 9년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출연하면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몇 주 만에 바꾸며 대한민국 최고의 육아 멘토로 거듭난 오은영 원장은 이를 통해 2013년 제4회 한국방송대상 문화예술 부문에서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로 개인

상을 수상했다. 또 2017년에는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유아교육전문가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종영된 이후에도 오은영 원장의 인기는 계속됐다. 그의 활동은 EBS '60분 부모'를 거쳐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방영하는 채널A 육아 솔루션 예능 '요즘 육아-급속같은 내 새끼'로 이어졌다. 이 방송에서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진심 담은 조언을 전달하며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지 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급속같은 내 새끼'를 향한 관심이 뜨거워지자 9월 채널A는 오은영 원장의 이름을 건 프로그램 '오은영의 급속 상담소' 문을 열었다. '오은영의 급속 상담소'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며 마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솔루션 상담 프로그램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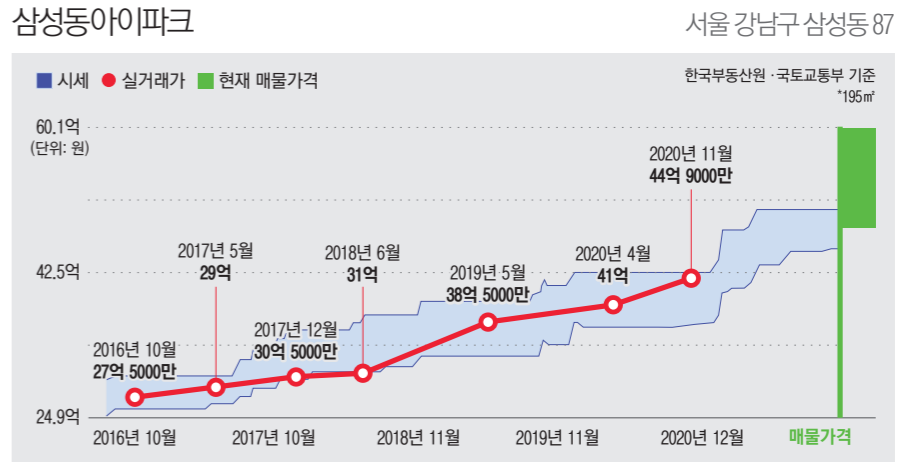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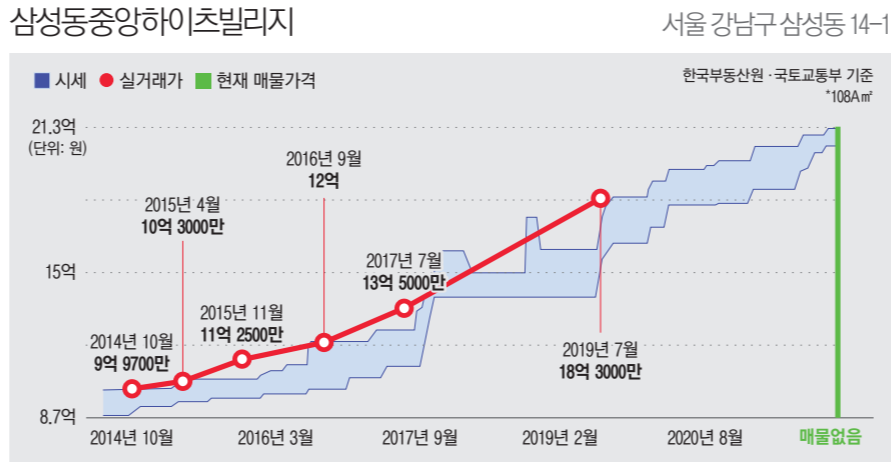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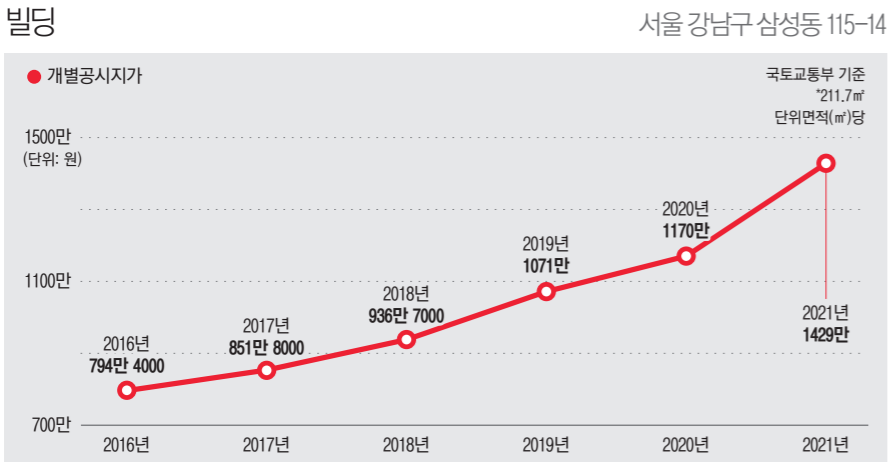
상담 대상을 어린이가 아닌 어른까지 한층 넓혔다.

한편 오은영 원장이 연습생들의 엄마로 나서 화제다. 이와 관련해 이달 28일 첫 방송을 확정할 글로벌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MBC '방과 후 설렘'의 프리퀀 '오은영의 등교전 망설임'을 통해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오은영의 등교전 망설임'은 오은영 원장이 83명 연습생들의 엄마로 변신해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프로그램으로 MBC 방영에 앞서 네이버NOW에서 방영됐다. 그는 연습생들이 가진 고민을 따뜻한 격려와 조언은 물론, 경청과 공감으로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입학 미션 중간 평가에서도 엄마로 참가해 함께 지켜보며 용기를 준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달 31일 첫 방송을 시작해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30분에 편성돼 4주에 걸쳐 방송된다. 이동원 기자



오은영
현)오은영의원 소아청소년클리닉 원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외래교수
오은영 저능개발연구소
오은영 아카데미 원장
오은영의원 소아청소년클리닉 원장



이원구 전)호서대 예체능대 예술학부 교수

이원구 전 호서대학교 예체능대 예술학부 교수는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도안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한국그래피디자인협회 감사, 눈높이 교육 대교 자문교수, 한국미술가협회 디자인 분과위원장, 한국그래피디자인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그는 종근당, 서울약품을 거쳐 대우제약 홍보부장을 지냈으며 국민대, 단국대, 홍익대, 서울대 등 미술대학에서 23년간 강의했다. 이원구 전 교수는 지난 1987년 호서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로 임

문근영

문근영은 1999년 시골 분교를 배경으로 한 어린이 드라마 '누룽지 선생님과 감자 일곱 개'에서 학생 7명 중 한 명으로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이 외에도 단역을 몇 번 하다가 영화 '길 위에서'에서 주인공을 맡으며 정식 데뷔했다. 이듬해 문근영을 '국민 여동생'으로 자리매김하게 해준 KBS2 드라마 '가을동화'에 출연했다. '가을동화'는 방영 당시 최고 시청률 42.3%를 기록하며 많은 시청자의 눈물샘을 자극한 바 있다. 이 드라마에서 문근영은 어린 은

한배우

서역을 맡아 송혜교의 아역으로 열연을 펼쳐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 드라마 '명성황후' '아내' '바람의 화원' '신데렐라 언니'를 비롯해 영화 '연애소설' '장화, 홍련' '어린 신부' '댄서의 순정' '사도' 등에 출연했다. 특히 신운복을 연기한 '바람의 화원'으로 그해 S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이춘성

이춘성 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서울대병원 척추 전임의사, 울산대 의과대학 의학과 정형외과학교실 조교수를 거쳐, 부교수,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 정형외과 의사, 기획관리실장 등을 지냈다. 그는 '한국의 100대 명의' '척추외과 전문가들이 뽑은 베스트 닥터 1위'에 선정될 만큼 척추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를 자랑하는 의사다. 또한 요부변성후만

이준성

이준성 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서울대병원 척추 전임의사, 울산대 의과대학 의학과 정형외과학교실 조교수를 거쳐, 부교수,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 정형외과 의사, 기획관리실장 등을 지냈다. 그는 '한국의 100대 명의' '척추외과 전문가들이 뽑은 베스트 닥터 1위'에 선정될 만큼 척추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를 자랑하는 의사다. 또한 요부변성후만

정)울산대 의과대 의학과 정형외과학교실 교수

증을 세계 최초로 보고하는 등 다양한 연구 활동과 수상경력으로 명성이 높다. 그는 '척추외과 분야는 의료계의 어느 분야보다 검증되지 않은 영터러 치료, 상업적 과잉 치료가 활개치고 있다'고 밝히면서 양심을 지키는 의사, 의료계의 불편한 진실을 날카롭게 색출하는 의식 있는 의사로도 유명하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처인구 역북·수지구 죽전·상현동에 지식산업센터 3곳 건립

경기도 용인시 처인·수지구

용인시는 처인구 역북동과 수지구 죽전·상현동에 지식산업센터 3곳을 유치해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를 완료했다고 지난날 31일 밝혔다. 따라서 이 세곳에는 제조·IT·정보통신 등 첨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먼저 처인구 역북동 일원에 들어설 지식산업센터는 5만9364㎡ 부지에 조성된다. 지하 4층-지상 4층 연면적 12만 5846㎡ 규모로 2800여억원을 투입해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전체면적의 73%인 9만 1805㎡가 아파트형 공장 등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3만4040㎡엔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의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유치업종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완공되면 200개 업체가 입주해 약 84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전망된다. 이어 수지구 상현동 1187번지 광고택지 개발지구 내 796㎡ 부지에 들어서는 지식



수지구 상현동 지식산업센터 조감도

산업센터는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3만 2050㎡ 규모로 조성되며 908억원을 투입해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면적의 75%인 2만4039㎡는 제조시설, 나머지 8011㎡는 기숙사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주요 유치 업종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이다. 완공되면 88개 업체가 입주해 789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수지구 죽전동 3만5087㎡ 부지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4층-지상 4층 연

민간공원 특례사업 4곳 사유지보상 완료, 소유권 시로 이전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마륵, 봉산, 신용, 운암산 등 4개 도시공원의 사유지 72만8000㎡에 대해 보상을 마치고 공원부지 소유권을 시로 이전완료했다고 지난날 31일 밝혔다. 공원별 사유지 면적을 살펴보면 마륵 18만2000㎡ △봉산 20만3000㎡ △운암산 28만4000㎡ △신용 5만9000㎡이다. 민간공원으로 추진중인 중앙공원 등 9개 도시공원 면적 788만3000㎡ 중 사유지 면적은 640만3000㎡(81%)로 현재까지 보상 완료된 면적은 181만3000㎡며 이는 전체 사유지의 28%에 해당한다. 이어 일곡, 수광, 송암 등 3개 도시공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중앙과 중외공원은 하반기까지 각각 토지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보상이 완료되면 총 668만㎡(사유지 640만3000㎡, 국공유지 27만7000



광주광역시청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기에 시에서도 수목식재와 편의시설 설치 등 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시민들은 제대로 된 도시공원을 이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생태숲 조성사업 등 추진이 가능하다. 토지보상은 토지주와 사업시행자가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3인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협의보상을 추진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토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수용재결 등을 통해 토지보상이 마무리된다. 김충호 시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사업시행 초기 단계부터 민간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공원 조성은 후대에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토지보상을 완료하지 못한 다른 공원들도 신속히 토지보상을 완료해 남은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